

전주의 전통문화, 세계가 주목

6·25 전쟁 전사자 묘역 찾아

시, 프랑스서 열린 테이스트 코리아 '전주스페셜' 서 집중 홍보

한식·한지·전통주 등
메인행사 '전주의 날' 서
음식 대면회 성황리 열려
김승수 시장 "문화·관광
경제 연결 문화비전 일굴것"

전주음식과 전주한지 등 전주의 우수한 문화가 국내 단일도시로는 처음으로 유럽 문화의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집중 조명되면서, 글로벌 문화 관광도시로 우뚝 서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전주시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간 프랑스 파리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관광문화대전 테이스트 코리아(Taste Korea) 전주스페셜 메인행사인 '전주의 날'에서 전주음식과 한지, 전통주 등 전주의 우수한 문화를 집중 홍보했

다고 22일 밝혔다.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이 지난 2개월 동안 전주의 한식과 한지, 전통주 등 전통문화를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홍보한 '테이스트 코리아'는 한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로, 올해는 전주시가 단일 도시로는 최초로 선정돼 집중 조명을 받았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지난 2016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경상·강원·전라지역'과 '평창·강원지역'의 문화를 조명하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문화행사로 치러졌다. 특히, 전주가 단일도시로는 최초로 테이스트 코리아 행사를 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해 전주한지 세계화를 위해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와 바티칸교황청을 방문했을 당시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을 찾아가 협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파리 현지에서 열린 테이스트 코리아 '전주 스페셜' 메인행사인 '전주의 날'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관계자,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사장을 비롯한 각계인사와 현지 교민, 현지 언론과 여행전문가, 파리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식음식 대면회가 성황리에 열려 전주 한식에 대한 파리시민의 뜨거운 반응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이 자리에서는 테이스트 코리아 행사 소개를 시작으로 관소리 축하공연과 전통주 예절 및 전주비빔밥 시연 등이 진행됐다. 또, 전주관광과 한지, 한식을 소개하는 홍보부스도 운영돼 파리시민 등 유럽인에게 글로벌 문화 관광도시 전주의 이모저모를 알리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에 앞서, 올해 테이스트 코리아 전주 스페셜 행사의 첫날인 지난 18일(현지시간)에는 프랑스 유명 요리 학교인 크르도트블부에서는 우수숙 전주음식 명인과 김소형 전주전통술박물관 실장이 참여해 김치와 전통주 등

한식과 전주의 맛을 주제로 한식문화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이어, 20일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주한지를 사용해 원본과 똑같이 만든 100여년 전 고종황제의 친서 복본을 전달하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세계 3대 박물관인 루브르박물관 소장 문화재 복원에도 사용되면서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은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집중 조명하는 전주한지 컨퍼런스가 열리기도 했다.

전주의 우수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전주스페셜 행사에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오고 있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맛과 세계 가톨릭 수장인 교황께서도 인정받은 전주한지 등 전주의 찬란한 문화가 프랑스에서 집중 조명된 것 자체가 전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도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문화가 관광과 경제로 연결돼 시민들의 먹거리가 되는 전주만의 문화비전을 착각 일궈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6.25 전쟁 68주년을 사후 앞둔 지난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군장병이 6.25 전사자 묘역을 정비하고 있다.

원광대 지역인문학센터 '관심집중' | 강연호 센터장 인문학의 대중화 힘써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는 원광대학교 HK+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이곳에서 지역인문학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강연호 센터장이



이 핫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인문학센터는 다양한 인문자산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됐다. 강 센터장은 1997년 원광대 인문대학 교수로 취임 후 인문학연구소장, '문예연구' 편집주간, 전북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새롭게 출범한 지역인문학센터의 대 주제를 '합성 인문학'으로 정했다. 가족과 이웃, 세대와 계층이 단절과 벽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나아가 동북아시아 각국이 경계를 넘어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강 센터장은 "지역인문학센터는 인문학적 가치를 고양하려는 인문학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인문대중화사업을 운영하지만 그 범위와 목표에 차이가 있다. 센터는 전북 5개 권역별로 나눠 각 권역별 특성화를 활용한 맞춤형 인문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며 "원광대 지역인문학센터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끄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지역민들이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인문연대의 주체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백제의 인문학적 가치를 탐구한 '인문백제', 남천 송수남·작가 최명희 등 전북 대표 예술가들의 삶과 업적을 살펴 본 '인문인물열전' 등

인문강좌를 열었다. 또 전주와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인문버스탐방 '지도답아들레'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재 익산보건소에서 '다독다독 품앗이' 인문체험, W미술관에서 교육과 체험 형태로 제공하는 '행복한미중물 인문학', 원광중에서 '인문놀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30일에는 원광대 인문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18 인문 서동 익산 글과 그림이 있는 가족백일장'을 개최한다.

강 센터장은 "익산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시작으로 호남고속철도(KTX) 등 문화적 중흥의 호기를 맞았다"면서 "익산의 인문학적 연구는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도내 덴기열 첫 확진환자 발생 해외여행시 모기 조심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2일 도내에서 덴기열 환자가 울 들어 첫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 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에서는 위험국가를 방문하고 발진,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카바이러스, 덴기열, 치쿤구니아열과 같은 모기매개감염병에 대하여 확진검사를 실시, 도내에서 올해 첫 덴기열 양성환자가 발생했다. 2000년에 4군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덴기열은 덴기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될 수 있고 주요 매개모기로는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이집트숲모기로 알려져 있다. 덴기열은 감염자 중 약 75%정도가 무증상이지만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는 발열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치료된다. 덴기열은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위험국가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김진성 기자

제29회 정읍사문화제 거리퍼레이드

정읍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 정읍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

접수기간: 2018. 6. 11.(월) ~ 7. 10.(화) / 30일간

참가부문: 전국 15팀, 정읍 30팀, 자매결연도시 6팀

참가자격: 팀당 30인 이상 (거주지 및 국적 제한 없음)

참가지원: 정읍시 - 퍼레이드 카 및 조형물 제작비 1,000,000원, 참가지원비 1인당 10,000원

전국(정읍외) - 퍼레이드 카 및 조형물 제작비, 참가지원비 일괄 2,000,000원

시 상 금: 총상금 1천9백만 원 상당

- 대상 1팀 5백만원 외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5팀, 인기상 3팀

접수방법: 정읍시청 홈페이지의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신청

- 방문, 우편, E-mail, Fax 접수
- * 신청 현황에 따라 신청서를 사전심사 할 수 있음

세부사항: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문의: 정읍시청 토탈관광과 김희선 063-539-5236

거리퍼레이드: 10월 19일(금) 16:00~18:00 아양교~정동교~정읍사공원